KiRi Weekly 2014.8.25
글로벌 이슈

인도의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와 시사점

이소양 연구원

■ 2014년 7월 10일 인도 재무부는 보험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기존의 26%에서 49%로 상향 조정하는 완화조치안을 발표함.[1)]

- 동 완화조치안은 7월 24일 인도 경제내각위원회(CCEA)에서 승인되었으며, 이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안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(BJP)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전망임.
  -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의회 543석 중 반을 넘는 28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언스트앤영(Ernst & Young) 인도사업부 고문인 애쉬빈 페러크(Ashvin Parekh)는 완화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인도시장에 대한 외국보험회사들의 투자는 약 52~6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■ 인도 브랜드 자산재단(Indian Brand Equity Foundation)의 조사[2)]에 따르면 인도보험시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크게 성장하였지만,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인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03년 147억 달러에서 매년 16.3%씩 증가하여 2013년 66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, 이에 따라 인도보험시장 순위는 세계 19위에서 15위로 상승함.
  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03년 115억 달러에서 매년 16.6%씩 증가한 2013년 533억 달러,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03년 32억 달러에서 매년 15.4%씩 증가한 2013년 131억 달러까지 상승함.
- 2013년 인도의 보험밀도는 세계평균인 65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52달러이며 보험침투도도 세계평균인 6.3%에 못 미치는 3.9% 수준인데, 이는 인도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.
- 한편, 2013년 인도의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회사가 24개사, 손해보험회사가 27개사인데 인구가

1) 동 완화조치안은 2005년 만모한 싱(Manmohan Singh) 전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에서 처음 검토되었으나 연합정권 중 좌파정당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음.
2) Indian Insurance Industry Analysis(2014. 3).

비슷한 중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임.

- 2013년 중국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70개사, 63개사가 있음.

글로벌 컨설팅회사들은 향후 인도의 경제발전과 중산층 확대로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- 맥킨지(McKinsey & Company)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5%대에 그쳤지만 향후 매년 약 7.5%씩 성장하여 GDP 규모가 2030년에 약 4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.[3)]
  - 맥킨지는 인도경제가 중국처럼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내수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.
- 언스트앤영(Ernst & Young)은 인도 중산층 인구가 2013년 5,000만 명에서 2020년 2억 명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[4)]
- 타워스 왓슨(Towers Watson)은 향후 인도보험시장이 경제 성장, 중산층 인구 증가 등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  - 인도 브랜드 자산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수입보험료는 2013년 664억 달러에서 2020년 3,500~4,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인도시장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는 아직 많지 않았으나 규제완화가 시행될 경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미국 Met Life, 캐나다 Sun Life, 일본 Nippon Life, 영국 Standard Life, 프랑스 AXA Group, 홍콩 AIA Group 등이 인도의 대표적인 외국보험회사들이고 삼성생명, 삼성화재, 현대해상이 주재사무소를 개설하였음.
- 인도보험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발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.

(IBEF, Ernst & Young, McKinsey & Company, Towers Watson 등)

3) Reimaging India(2014. 3).
4) China and India: Tomorrow's Middle Classes(2013).